

“생명 주는 말·덕 세우는 말하면 재앙없다”

효산 스님(효산선원장)

“나는 세상에 제일 훌륭한 분이 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둘 중 한 사람은 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누가 도인이 되겠느냐?”

15살, 13살의 두 아들을 앉혀 놓고 어머니는 물었다. 두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재차 큰 아들에게 도인의 길을 가겠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흔들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더니 그 자리에서 도인의 길을 가겠다고 답했다.

“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머리 깎고 스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여 도인이 되어야 한다. 자신 있느냐?”

13살의 어린 소년은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고 어머니와 약속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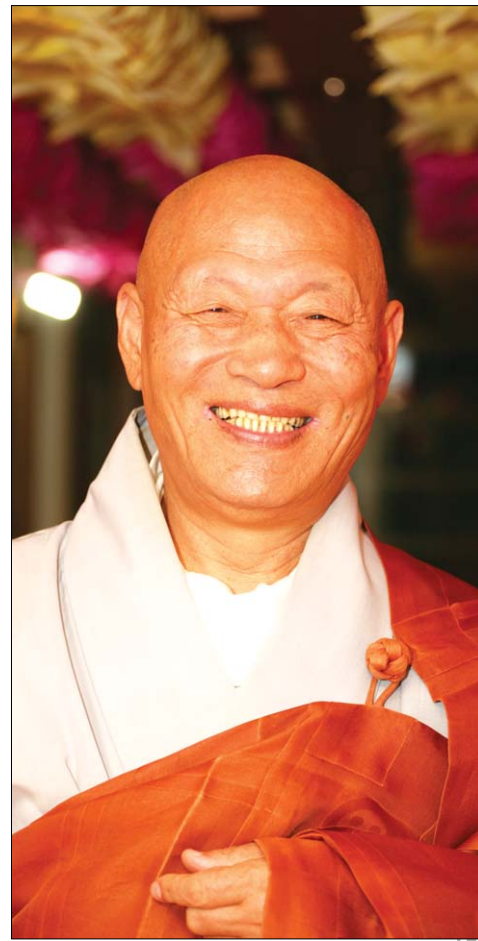
어머니는 그 때부터 둘째 아들을 도인의 길로 보내기 위하여 날밤을 지새고 준비를 하였다. 무명천을 회색으로 물들여서 둘째 아들의 몸에 맞도록 재단하고 마름질했다. 아들 하나가 출가를 하여 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내장사 스님에게 연락하여 미리 출가할 날을 받아두었다가 그날 아들을 앞세우고 절로 갔다.

어머니는 멀리서 가까이서 한 달에 한 번씩 승복을 깨끗이 손질하여 절로 올려 보냈고, 큰절에서 살아야 배울 것이 있다면서 혹은 아들이 작은 암자에서 살면서 출가자로서 느낀해 질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아들이 올곧게 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효산 스님은 출가의 길로 이끌어 주신 어머니가 고맙지만 하다면서 ‘지금도 과연 어머니가 원을 세우신 대로 바른 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을 했다.

13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출가를 하였기에 종교에 대한 공경은 너무나 많았다. 누구를 볼 때도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기에 혼자서 책을 읽고 공부했다. 15세부터 2년에 걸쳐 참종교란 무엇인지 천주교·개신교·원불교·유교 등 모든 종교를 두루 섭렵했다. 치열한 성찰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간화선법만이 최상의 법임을 깨달았다. 가장 수순한 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오로지 그 길을 향하여 걸었다. 그 후부터 해인사·범어사·통도사 등 제방선원을 두루 거치면서 참구정진 했다. 그렇게 정진한지 40여년 만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였기에 후학들에게 지침이 되는 것을 제시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효산 선원을 열고 <수행지침서>를 펴내어 법보시를 하고 있다.

“참선을 하면서 술한 경계와 마주칠 때마다 선어록을 보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갔어요. 그때 목적지와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정확한 지침서가 있다면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분별심(思量分別心)을 쉬어야 하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깨침에 이를 가능성이



“도인의 길 가겠다” 어머니와 약속하고 13세에 출가 간화선 공부 간절히하면 자기 에너지 100% 쓸 수 있어

를 것이라 생각했지요. 선을 생활화하려면 순간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론은 선(禪)이 신비의 영역에서 벗어나 일상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란다. 수행에 앞서 몸의 원리, 말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강조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효산 스님의 수행방법론 중 하나이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편의상 만든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말에 빠져 그것을 더욱 더 형상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증내는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말이란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낱말 자체에 의미를 두고 감정이 실려진 말의 본뜻은 사라지고 수많은 오해만 만들어 냅니다.”

효산 스님은 “말의 원리를 안다면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말로 칭찬을 하고 나를 추켜 세우든 그저 미소만 띄울 뿐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악담을 하고 나를 모략(謀略)할지라도 말의 원리를 안다면 미소를 띠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탈지언정 상대방과 괜히 서로 나쁜 소리나 비난을 주고받으며 싸운다든가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말의 원리를 알고 그때그때 택할 건 택하고 버릴 건 버리면 열 번 어려움이 온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이제까지 말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효과적인 말의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은 업도 갚을 뻔던 다음 생애에 몸 받아가도 화(禍)는 없을 것입니다.”

효산 스님은 산중불교를 벗어나 부산 연지동의 한 신아파트 502호를 수행도량으로 꾸며 선원을 열었다. 아파트를 수행도량으로 삼은 것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게 오고갈 수 있다는 점과 선원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이기 때문이란다. 효산선원에서는 새벽 3-5시, 오전 8-10시, 오후 2-4시 이

렇게 하루 세 번 정진을 하고 있다. 또 토요일에는 밤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수행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천도재·불공·기도 등 그 어떤 것도 배제한 채 오로지 참선지도만 하고 있다. 축원문 한 장 없이 구십 평이나 되는 선원을 어떻게 꾸러나가는지 궁금했다.

“전 40년 넘게 선방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절약하는 데는 자신 있어요. 겨울에 추우면 옷 많이 입으면 되고... 평생을 선원에서 수행한 덕인지 아직까지 아파서 병원간 적은 없어요. 이것도 다 부처님 가르침 생각해요.”

효산 스님의 은사자인 고암 스님은 중정을 세 번이나 지내셨으며, 평생을 무소유로 살다 가신 분이 다. 아마도 은사님의 철저한 무소유를 온 몸으로 체득하셨나 보다. 효산 스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불자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정법인지를 알 수 있다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기를 권하였다. 스님은 간화선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 마음의 힘과 말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음은 보려 해도 볼 수가 없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일체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허공계이고 이 허공계는 허공·바람·전파(電波)·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공의 힘은 전 우주를 인력(引力)에 어긋남이 없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바람의 힘은 원소(元素)로 돌아가게도 만들며 다시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파는 1초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단숨에 달리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의 생각함과 움직임을 기록하기도 해요. 그러니 누가 보지 않는다고 남을 속인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파의 기록에 비추면 명경지수(明鏡止水)에 달 그림자 비춘 것과도 같아요.”

공기 또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은 산소를 섭취하여 탄소를 내뿜고 식물은 동물이 내뿜은 탄소를 취하여 산소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상호유기적(相互有機的)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이로운 것을 것이 공기인데 자리아타(自利利他)는 바로 공기에서 배워야 한다는.

“허공계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가 사람이며 사람이 곧 근원이고 으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을 알고 쓴다면 전 우주와 일체 물질계를 포함하는 허공계를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힘을 찾아 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장애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기위해 가르침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이것을 설법하셨고, 그 후로도 많은 도인들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위해 애를 썼어요. 불교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효산 스님은 삼처전심(三處傳心)을 간화선의 핵심이라 한다. 이심전심의 법을 가설존자에게 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간화선의 뿌리로 보며 선종에서는 삼처전심을 교외별전의 유일한 근거라 하여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경전 밖에 따로 문자를 전하지 않는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의 가르침은 중도(中道)·연기(緣起)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선(禪)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수행이며, 그 어떤 수행법도 가장 빠르게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마음 본자리를 밝히는 길입니다.”

삼처전심이란 첫째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니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는 영산회상 거화(靈山會上拈花)이고, 둘째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금강독원에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할 때 마하가섭이 뒤늦게 당도하자 부처님께서 당신이 앉으셨던 자리 일부를 내주어 가섭을 그 자리에 앉게 했다는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이다. 셋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골라!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II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 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 자를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중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넘어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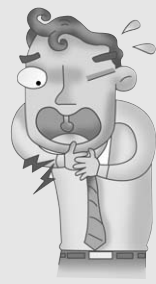
• 남성용 • 여성용
• 특수아이젠 부츠로 미끄럼 방지
• 수염은 천화 테스트를 거쳐 개발된 신소재로 신축성
• 인연후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눈슬림 소재의 밑창
• 가격 88,000원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약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도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티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옷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것은 알지만 옷값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숙 박사의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 내용량 : 1식(80cm × 60cm) 2개입분 • 1병(1.5L)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금성농협에서 만든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인문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금 - 옷 안타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참옷을 몸에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려짐 없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식품은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타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무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보다도 물어보세요 - 질서면 약이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상생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류 - 협찬

구입땀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 조 : 금성농협 문 의 : 옷가네 참옷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